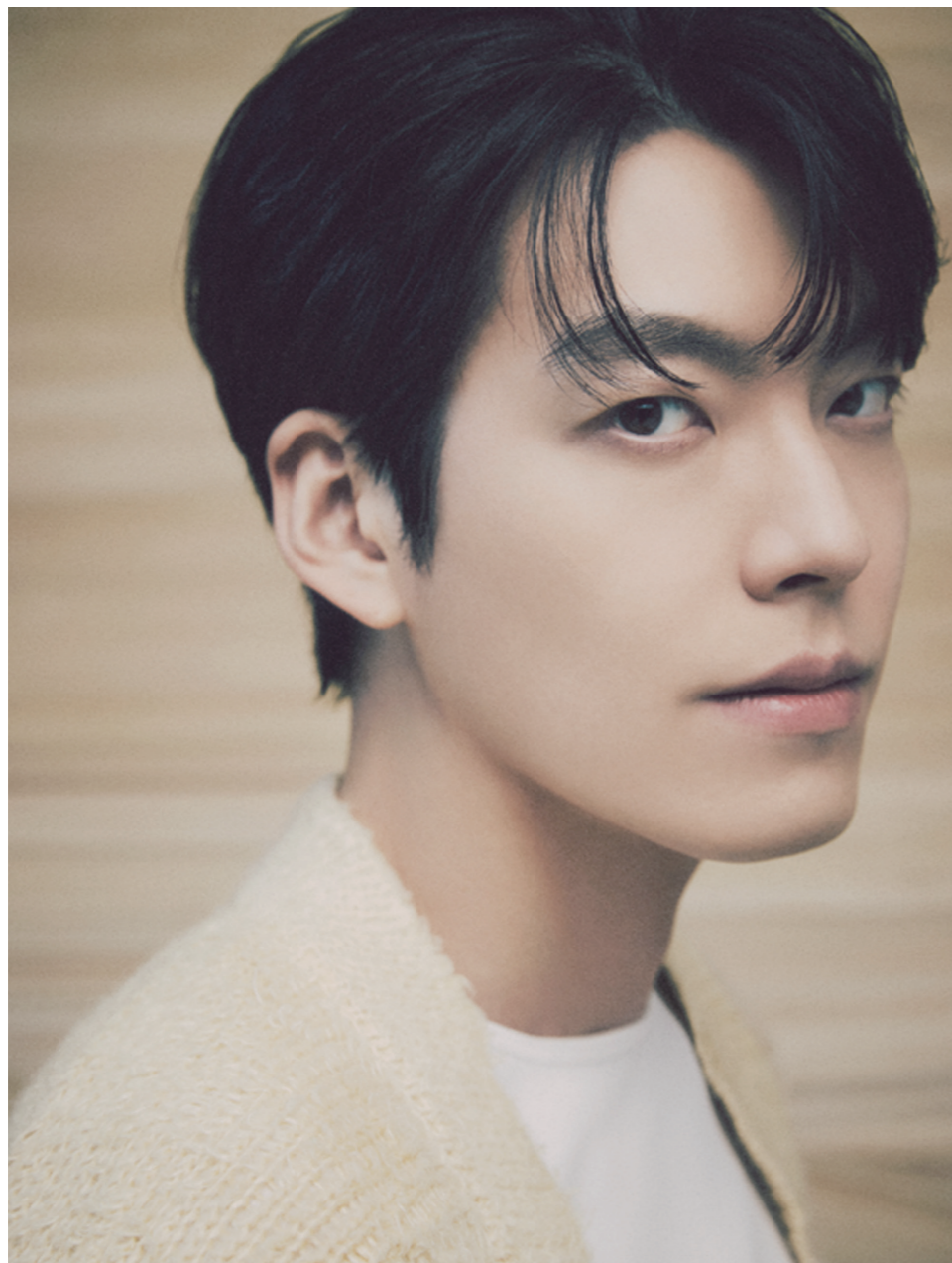


김우빈 “중요한건 마음가짐이에요”

넷플릭스 드라마 ‘택배기사’로 복귀해
투병 이후 영화·드라마 중흥무진 활동
“걱정 말라, 아프기 전보다 훨씬 건강”
“사소한 것에 행복·감사 느끼는 일상”
“액션?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더 중요”



배우 김우빈은(34)은 건강해보였다. 몸 뿐만 아니라 마음도 튼튼한 듯했다. 그가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드라마 ‘택배기사’가 최근 공개된 뒤 마련된 인터뷰에서 역시나 김우빈의 몸 상태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그는 웃으면서 자신 있게 말했다. “아프기 전보다 지금 몸 상태가 더 좋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제가 제일 건강할 거예요. 전 몸에 안 좋은 걸 안 하거든요.” 김우빈은 2017년 5월 비인두암 판정을 받고 2019년까지 투병했다. 세대를 대표하는

배우였던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 그랬던 그는 지난해 언제 아팠냐는 듯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복귀했다. 같은 해 영화 ‘외계+인 1부’에선 강도 높은 액션 연기를 보여줬고, 새 드라마 ‘택배기사’에서도 몸을 쓰는 데 주저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당당한 체격도 그대로다. “복귀 하고 나서 꽤 오랜 기간 만나는 분들마다 제 건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부담스럽기도 했죠.(웃음) 다행히 이제는 제가 얼마나 건강하지 다들 잘 알고 계시

요. 그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것, 그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김우빈의 말엔 감사와 행복이 항상 포함돼 있었다. 어떤 말을 해도 그 두 단어가 따라다녔다. 지난 10일 방송된 한 토크쇼에서 김우빈은 스마트폰 앱에 매일 간단한 감사 일기를 쓴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스마트폰을 꺼내 전날 쓴 감사 일기를 읽어줬다. “잘 자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맑은 날씨 감사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잘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우빈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놓치는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 사소한 것에서 자주 행복과 감사를 느낀다고 했다. “부모님이 저와 함께해주는 게 행복하고, 밥을 세 끼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해요. 전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인터뷰 하러 나오는데 해가 쨍쨍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행복했습니다.”

‘택배기사’는 넷플릭스가 발표하는 공식 시청 시간 집계에서 비영어 TV 부문 1위로 출발했다. 이 작지 않은 성과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김우빈은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며 “하루 하루, 바로 지금 소중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서 이런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많은 분이 봐준다면 정말 좋다”고 했다.

몸도 몸이지만, 김우빈에게 마음이 더 중요해보였다. ‘택배기사’에서 김우빈이 연기한 택배기사 5-8은 낮에는 택배기사로 일하지만, 밤에는 난민을 위해 싸우는 흑기사. 전설의 택배기사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도 높은 액션 연기가 많았다. 이 액션에 대해 묻자 김우빈은 역시나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관한 답을 내놨다.

“액션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되더라고요. 아, 물론 연습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그에게 짜증나거나 화가 나는 일은 없냐고 물었다. 그는 당연히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짜증과 화를 어느 정도는 다스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 긍정적인 편이지만 당연히 짜증나는 일 너무 많아요. 흰옷에 커피만 튀어도 얼마나 짜증나는데요.(웃음)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화나거나 짜증났다는 걸 제가 더 빨리 케치한다는 겁니다. 예전엔 제가 화가 난지도 모르고 행동하다가 후회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화났다는 걸 정확히 알고 나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 짜증도 내고 화도 냅니다.(웃음)”

KBS, 뉴스 강화...‘노래가 좋아’ 등 5개 폐지



KBS가 뉴스를 늘리고, 예능물 편성을 조정한다.

KBS에 따르면, 월-목 오후 6시 2TV ‘KBS 뉴스6’을 선보인다. 1TV ‘KBS 뉴스라인 W’도 신설, 국제 시사 정보를 제공한다. 1TV ‘일요일 아침 7시 뉴스’는 다음 달 11일부터 오전 6시와 8시 뉴스를 대신한다. 생방송 시사 토크쇼 ‘더 라이브’는 60분으로 확대 편성하며, 1TV에서 2TV로 옮겨 전파를 탄다. 그날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2TV 채널 성격에 맞춰 시사 예능 면모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 달 12일 첫 방송이다.

프로그램 5개는 폐지한다. 2TV ‘노래니 노아

트’는 3월23일 첫 선을 보인 후 두 달 여 만에 종방한다. ‘통합뉴스룸 ET’와 1TV ‘자연의 철학자들’과 ‘예설의 전당’ ‘노래가 좋아’도 막을 내린다.

2TV는 다양한 공의 예능물을 마련한다. ‘생존게임 코드레드’는 가상의 재난 상황 속 생존을 완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총 10부작이며, 다음 달 오후 5시10분 첫 방송한다. ‘오늘부터 구독중’은 그룹 ‘H.O.T’ 토니안과 개그맨 김해준 등이 농어민과 상생의 길을 찾는다. 4부작이며, 다음 달 18일 오전 8시55분 첫 선을 보인 다.

2TV ‘세컨하우스’는 시즌2로 돌아온다. 배우 최수종·하희라 부부와 주상욱·조재윤은 충남 서산시와 전북 진안군에서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45분 방송한다.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금요일 오후 10시에서 화요일 8시30분으로 이동한다.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은 편성을 변경한다. 일요일 오후 10시55분 전파를 탔는데, 다음 달 2일부터 금요일 오후 10시 인사한다. ‘9층 시사극’은 수요일 오후 11시에서 일요일 오후 10시55분으로 옮긴다.

2TV ‘박원숙의 같이 삼시디’는 채널과 시간대를 바꾼다. 다음 달 11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 1TV에서 방송한다. 1TV ‘tv쇼 진품명품’은 다음 달 11일부터 50분을 앞당겨 일요일 오전 10시10분 방송한다. ‘다큐 온’은 다음 달 10일부터 토요일 오후 10시25분으로, TV 비평 시청자대스크’는 일요일 오전 11시로 조정한다.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英 싱글차트 장기집권

K팝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에서 장기집권 중이다.

19일(현지시간)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가 지난 2월24일 발매한 첫 번째 싱글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Cupid)’의 타이틀곡 ‘큐피드(Cupid)’가 이번 주 싱글 톱100(19~25일)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지난 주 8위에서 3계단 하락했으나, 여전히 상위권이다. 특히 8주 연속 머물렀다.

해당 차트 96위로 깜짝 데뷔했던 ‘큐피드’는 급격한 순위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61위, 34위, 26위, 18위, 9위 등 한 번도 뒤로 밀리지 않고 차곡차곡 순위를 높였다.

일부에선 이번 주도 ‘큐피드(Cupid)’의 계속되는 상승세를 점쳤으나 최근 ‘유로비전 2023’에서 우승한 스웨덴 가수 로린의 ‘타투’가 2위를 차지하는 등 유로비전에서 주목 받은 가수들의 곡이 대거 순위권에 새로 진입하면서 뒤로 밀렸다.

‘큐피드’는 이미 2주 전에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협업곡 ‘사우어 캔디(Sour Candy)’가 해당 차트에서 기록한 17위를 제치고 K팝 걸그룹 최고 순위를 찍었다. 특히 K팝 걸그룹 처음으로 해당 차트 톱10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었다.

이제 ‘큐피드’는 영국 싱글차트 K팝 걸그룹



최장 진입 기록에 도전한다. 8주 진입은 블랙핑크가 미국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와 협업한 ‘아이스크림(Ice Cream)’, 블랙핑크 멤버 리사의 ‘머니’와 같은 기록이다. 해당 차트 최장 진입 기록 곡은 블랙핑크가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와 협업한 ‘키스 앤드 테이크 업’이 세운 12주다.

‘큐피드’는 오피셜 차트와 함께 세계 양대 팝 차트로 통하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도 K팝 걸그룹 신기록을 앞두고 있다. 다음 주에도 ‘핫100’ 진입이 확실해 9주 연속 해당 차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차트 k팝 걸그룹 최장 진입 기록을 쓰게 되는 것이다.

‘큐피드’는 이번 주에 블랙핑크가 ‘아이스크림’으로 세운 ‘핫100’ 8주 진입과 같은 기록을 세웠었다. ‘아이스크림’이 찍은 ‘핫100’ 최고 순위인 13위를 넘어설 지도 관심이다.

현실판 ‘오징어 게임’ 오는 11월 공개...“시즌2 아냐”

서바이벌 게임 현실로 구현한 배틀로열 방식의 ‘리얼리티 쇼’



오는 11월 ‘오징어 게임’ 속 서바이벌 게임을 현실로 구현한 배틀로열 방식의 리얼리티 쇼가 공개된다. 팬들이 기대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 2’는 아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게임스팟에 따르면 456명의 참가자가 456만달러(약 61억원)의

상금을 두고 벌이는 생존 서바이벌 ‘오징어 게임 : 더 퀘린지’가 올해 11월 중으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에 공개될 예정이다. ‘오징어 게임 : 더 퀘린지’는 원작 ‘오징어 게임’ 드라마 속 게임 진행 방식과 같이 단 한 명

의 생존자가 최고 상금을 차지할 때까지 각 라운드에서 탈락하는 배틀로열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틀로열은 프래그를 톨 중 하나를 여러 명의 선수가 동시에 경기를 시작해 생존을 위해 팀과 개인이 임시 협력하며 살아남는 최후의 1인이 승자가 되는 경기 진행 방식이다.

‘오징어 게임 : 더 퀘린지’는 올해 초 영국에서 이미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영국 타블로이드매체 더 선에 따르면 참가자 수십 명이 흑인의 추위에 부상을 입어 의료진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이번 경기에서 부상을 입는 일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그보다 가장 최악은 빈손으로 집에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오징어 게임 2’ 공개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제작을 총괄한 황동혁 감독은 최근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테스트 촬영을 시작하고 오는 7월 본격적인 촬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미국 방송계 최고상인 에미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 중 감독상은 비영어권 국가 최초, 남우주연상은 아시아 국제 배우 최초로 74년 에미상 역사상 처음으로 수상했다.



마블 ‘가오겔3’ 300만명 ↑ ...올해 최단 기록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이하 ‘가오겔3’)가 300만 관객을 넘겼다. 개봉 17일만이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가오겔3’는 19일 오후 3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전날까지 누적 관객수는 295만명이었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3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가오겔3’ 포함 ‘스즈메의 문단속’(540만명) ‘더 퍼스트 슬램덩크’(464만명) 3편이다. ‘가오겔3’는 ‘스즈메의 문단속’ ‘더 퍼스트 슬램덩크’보다 빠른 속도로 300만명을 넘겼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300만

명을 돌파하는 데 20일,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27일이 걸렸다. 이 작품은 2014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017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2’에 이은 ‘가오겔3’은 19일 오후 3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전날까지 누적 관객수는 295만명이었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3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가오겔3’ 포함 ‘스즈메의 문단속’(540만명) ‘더 퍼스트 슬램덩크’(464만명) 3편이다. ‘가오겔3’는 ‘스즈메의 문단속’ ‘더 퍼스트 슬램덩크’보다 빠른 속도로 300만명을 넘겼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300만